

벤츠 고성능 SUV...스포츠·패밀리 모두 갖췄다

AMG GLB 35 4MATIC 출시 최대 출력 306마력·제로백 5.2초 안전·편의사양 강화... 694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고성능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B 35 4MATIC' (The new Mercedes-AMG GLB 35 4MATIC)을 공식 출시한다.

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B 35 4MATIC은 지난해 9월 공식 출시 이후 약 3000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더 뉴 GLB의 첫 번째 고성능 모델이다. GLB의 넉넉한 공간에 AMG 특유의 디자인이 적용됐다.

우선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성능을 나타내는 외관에 다양한 AMG 요소가 적용됐다. 전면부 AMG 전용 파나메리카 그릴과 실버 크롬 프론트 스플리터, 에어 인테이크 등이 적용됐다. 측면은 실버 크롬 웨이스트 라인 밑으로 'TURBO 4MATIC' 문구와 19인치 AMG 5트윈 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 후면에는 AMG 리어 디퓨저와 라운드 테일파이프 트림, AMG 전용 유광 블랙 루프 스포일러로 외관을 강조한다.

또 2830mm의 휠베이스와 1035mm의 헤드룸을 바탕으로 넉넉한 공간을 갖췄고, 2열 좌석은 967mm의 레그룸을 확보해 뒷좌석에도 편안한 탑승환경을 제공한다. 최대 1805ℓ에 달하는 적재 공간도 장점으로서 꼽힌다.

AMG 전용의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계기판 하단에 위치한 알루미늄 느낌의 원형 통풍구는 오프로더로의 감성을 더했다.

더 뉴 AMG GLB 35 4MATIC에 탑재된 2.0ℓ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은 가속 페달을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B의 첫 번째 고성능 모델인 패밀리 SUV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B 35 4MATIC' 외관과 내부 실내 모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라, 장거리 주행 시에도 적합한 기어 변속을 제공한다.

또 '슬리퍼리(Slippery)', '컴포트(Comfort)', '스포츠(Sport)', '스포츠+(Sport+)', '인디비주얼(Individual)' 등 총 5가지 주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AMG 다이내믹 셀렉트가 탑재돼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스티어링까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개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포츠 패밀리 SUV라는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주행보조·편의기능으로 안전·편의성을 더했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

동·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을 포함한 최신 버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기본 탑재됐다.

이밖에 교통 표지판·액티브 브레이크·액티브 차선 유지·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등도 포함돼 안전성과 운전자의 편의를 강화했다. 손을 대지 않고 간편하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핸즈 프리 액세스가 포함된 키레스 고 패키지, 파노라믹 선루프, 후드폰 무선충전 기능 등도 기본으로 적용됐다.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 694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인기모델, 보험료 인하 S·C 클래스 등 등급 2단계 ↑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와 C 클래스를 비롯한 주요 인기모델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차량모델등급 평가 결과에서 S 클래스와 C 클래스, GLC, CLS 등 주요 인기모델의 차량모델 등급이 최대 2단계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등급 평가는 차량모델별 충돌사고 시 손상 정도 및 수리 용이성,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매년 책정하는 제도다. 1등급부터 최고 26등급으로 평가되며 1개 등급 상승 시 자동차보험료가 약 5%에서 10%까지 감소한다.

이번 2021년 차량모델등급 평가에서 S 클래스와 C 클래스는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17등급과 10등급을 기록했고, CLS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11등급으로 상위 평가됐다. 특히 GLC는 1단계 상승한 17등급으로 책정되며 2016년 국내 첫 출시 이후 5년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의 자동차 보험료 역시 최대 5~10% 상당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차량의 상향된 보험개발원의 차량모델등급은 지난 1월 시점부터 일괄 적용된다. 조정된 자차보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시에나 HEV' 사전 계약

토요타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미니밴 신형 모델 '시에나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시에나는 완전 변경된 4세대 모델로, 대담한 외관과 다양한 편의장비 등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전 모델이 하이브리드(HEV)로만 구성돼 있으며, 전륜구동(2WD)과 상시 사륜구동(AWD)도 함께 출시된다. 2.5ℓ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조합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가 뛰어나고 정숙성을 갖췄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앞 좌석과 2열 좌석의 열선 시트, 2열 좌석의 슈퍼 롱 슬라이드 시트, 파노라믹 뷰 모니터 등을 적용해 편의기능도 강화했다. 2WD 모델에는 오토만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적용됐고, AWD 모델에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시스템인 'E-Four'가 적용됐다.

오는 4월 13일 공식 출시되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 AWD 모델이 6200만원, 2WD 모델은 64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슈퍼레이스 GT 클래스 금호타이어, 스폰서십 연장

금호타이어는 슈퍼레이스 GT 클래스의 오피셜 타이어 공급과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9년부터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오피셜 타이어 공급하기 시작해 올해 3년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호 GT(KUMHO GT)' 클래스의 이름으로 레이싱을 진행하며, 금호 GT 클래스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은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전용 타이어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엑스타 레이싱 팀을 창단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1등석 공항 라운지서 영감...기아 K8 실내 공개

기아는 최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 K8의 실내 디자인을 공개했다.

1등석(First Class)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실내 공간을 구성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기아 K8에 처음 적용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Panoramic Curved Display)는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두 개가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부드럽게 이어져 간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시보드 높이를 약 20mm 낮추고 좌·우 A필러 각도와 룸 미러 모듈의 크기를 최적화하는 등 넓어진 시야와 실내 개방감도 특징이다.

아웃사이드 미러 접합부를 창문에서 문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는 삼각 창(델타 글라스)을 추가해

운전자에게 사방으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운전자 문에서 시작한 고급스러운 원목 느낌의 우드 그레인 장식은 전면부를 거쳐 동승석 문까지 1열을 감싸며 이어진다. 좌·우 스피커와 이를 연결하는 금속 장식은 전면부 영역을 측면부까지 확장하며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더했다.

센터패시아와 센터 콘솔, 도어 트림 등 실내 곳곳에 쓰인 우드 그레인과 금속, 가죽 소재가 조화를 이루고, 조작용은 주변부와 조화를 이루는 검정 유광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밖에 K8에는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시스템을 통합해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조작계가 처음으로 탑재됐다.

미디어 음량, 실내 온도 등을 제어하고 모든 버튼



은 터치 방식으로 적용됐다. 스티어링에는 신규 기아 엠블럼이 적용됐으며 기아 최초로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로 피어나는 광주 동명동

광주의 역사와 희망으로 채운 동명동의 시간 문화재생 프로젝트 한창, 개성있는 문화마을로 인문·문화 향기 나누며 동명동을 지키는 사람들 '동명동 100배 즐기기' 동리단길 투어

클릭, 문화현장 ⑥ '자연을 그려내는 미술관' 3월 개관 전남도립미술관

문화로 품은 건축물 ⑦ 자연광과 예술이 만나는 순수한 공간 파주 미에시스 아트 뮤지엄

문화 화재-광주 북구 '우리동네 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에 갤러리가 생겼어요"

배국남의 대중문화 저파일 ⑧ 설 자리 사라진 개그맨과 코미디 부활 절실

예향 초대석

45년 종이인형 만들어온 엄정애

"인형 만드는 과정은 치유의 시간"

우리 땅 우리 문화 ⑤ 아름다운 누각, 남원 광한루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⑥-웃 예술과 기술 통합, 모던한 '바우하우스 양식' 만든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지기

조너선 스위프트 '컬러버 여행기' 호기심이 마르면, '우리'에 갇힌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JTBC '싱어게인' 주역 정홍일·이무진 스마트시티다 부사장 이승규 모교 찾아 훈련하는 자이언츠 투수 김원중

선동열의 야구학 ① 강속구의 시대, 한국 야구는 왜 소외됐나

전시 리뷰 해동문화예술촌 <문화로 빛나는 도시, 담빛예술마을>전

싸락싸락 남도 한 바퀴-구례 꽃소식이 달려온다, 구례 새봄 여행

섬진강, 지리산에 맴도는 봄 우리말방과 산수유